

의령 서암저수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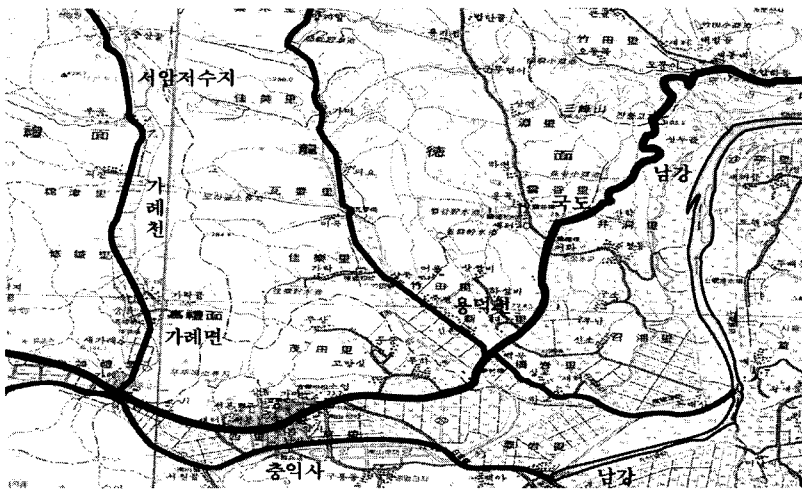
Seoam Reservoir in Uiryeong

박 상 현*
Park, Sang Hyun

서암저수지는 경상남도 의령군의 영산인 해발 897m의 자굴산 기슭에 있는 높이 18m인 낮은 저수지로서 1959년에 만든 노후된 시설이다. 이 곳에서 독을 5m 정도 높이는 저수지 보강 공사가 2002년 말에 착수하여 이제 한창 마무리 중에 있다. 이 공사가 올해 완공되면 물그릇의 용적이 9십만^m에서 17십만^m로 거의 두배로 증가하여 280여ha의 농지의 가뭄을 해결해

주게 된다. 저수지의 유역면적은 1,380ha나 되어 유입수량이 매우 풍부한 편이다. 여름철에 집중적으로 내리는 비는 저수지를 넘쳐서 동쪽의 깎아지른 절벽에 만든 물넘이 폭포에 물보라를 일으키며 수직으로 하천에 낙하한다. 이는 미국의 나이아가라 폭포에 견줄만한 절경이다.

서암(書岩)이란 이조 중엽에 이퇴계 선생께서 젊은 시절에 처가댁(의령 허씨)이 있던 저수



서암저수지와 남강변 연안

*농업기반공사 의령지사장(pshpark@karico.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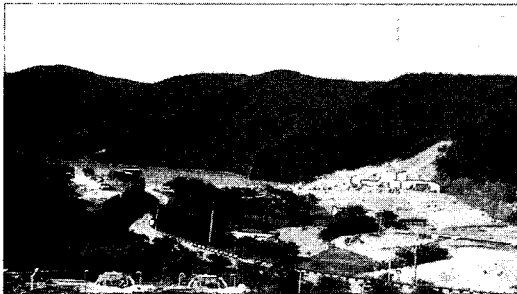
지 상류의 갑을 마을에 머무르며 현재의 저수지 산기슭의 절벽에 직접 글을 새겨놓은 바위에서 유래한다. 이곳 의령문화원에 의하면 이 글은 1959년에 서암저수지를 만들 때 현재의 여수로 공사구간의 암반을 깎아낼 때 없어졌다고 한다. 그러나 가례천에 퇴계선생이 새겨놓은 가례동천(嘉禮洞川)이란 글씨가 아직도 선명하게 남아있다. 홍수를 방류하기 위하여 만들어 놓은 여수로는 콘크리트 구조물이며 그 하류 이행부에서 폭포 입구까지 110m의 방수로 구간은 암반을 쪼개어 만들었기 때문에 표면이 거칠지만 홍수 때 수력 에너지를 줄여서 폭포로 떨어뜨리는데 매우 효과적이다.

지난 가을 매미 태풍 때에는 좁은 여수로 구간을 미리 절개하여 수심을 6m 이상 확보해 놓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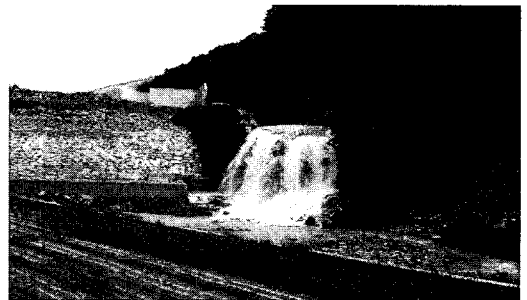
덕분에 시간 당 80mm의 강우에 의한 홍수를 큰 피해 없이 방류할 수 있었다. 올해 홍수가 이후 여수로 폭을 58m로 확장하면 설계홍수량 224m³/s를 방류하는데 안전한 시설이 된다.

저수지 공사 감독인 농업기반공사 소장에 의하면 시공 중 가장 어려운 문제는 저수지 확장에 따른 4ha의 홍수터 부지와 1.4km의 도로 이설에 따른 용지매수와 보상이다. 이곳 토지 소유자들이 도회지로 나가 있거나 보상비에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 지역 군의 원의 도움으로 지난 설날에 고향을 찾은 토지 소유자들을 만나 끈질기게 설득한 결과 이제는 90% 이상 용지매수와 보상을 완료한 상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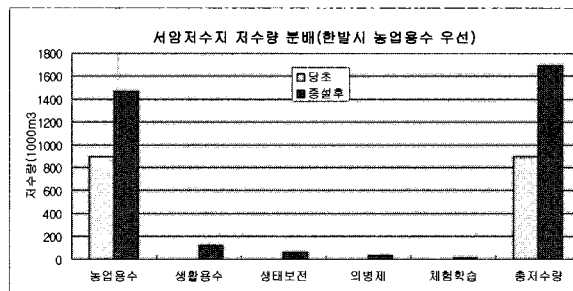
끝내 용지매수가 안된 저수지 밖의 도로 옆 소나무 숲은 약 6m 높이의 옹벽을 쌓고 제방 면적을 축소하였다.



서암저수지 공사 현장
(좌측 여수로 폭포)



서암저수지 여수로의 폭포수 전경



서암저수지의 물 분배방안(풍수시)

표 1. 서암저수지 보강공사 내용

구 분	보강 전	보강 후	비 고
제당길이 (m)	178	192	중심코아형
제당높이 (m)	18.2	23.2	
유효저수량 (m ³)	894,000	1644000	
만수면적 (ha)	15.00	20	용지매수 6.5ha
설계홍수량 (m ³ /s)		224	200년 빈도
여수로 길이 (m)	45	58	

또한, 이곳은 산지가 많아서 저수지 축조에 필요한 석재의 구입은 용이하지만 중심 코아를 만드는 데에 필요한 점토 토취장을 구하기가 매우 어렵다. 얼마 전에 애써서 구입한 점토장은 주민들이 흙을 파 가면 풍수지리상 동네에 큰 사고가 난다고 집단적으로 반대하여 결국 포기하고 다른 지역을 물색하고 있는 중이다. 이와 같이 농촌의 피폐된 인심을 훈훈하게 바꾸는 것이 삶의 질을 높이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

저수지의 물은 주로 농업용수로 사용될 예정이지만 의령군이 시행하는 복지단지사업에 약 11ha의 수혜구역이 편입되고 국토관리청이 시행하는 도로 확장에도 전용될 계획이므로 이 구역에 급수하던 농업용수를 주민들의 생활용수로 대체될 수 있다. 2004년 3월에는 의령군에서 약 10만m³의 흙을 저수지로 준설하여 의령복지단지의 기반 재료로 사용하였기 때문에 저수지 용량도 확보되고 수질도 개선하게 되었다. 또한 이곳 산림조합에서는 올해 저수지 상류의 자굴산에 10개의 방사지를 설치하여 홍수 때 산에서 침식되어 저수지에 유입되는 토사를 차단할 예정이다.

저수지 하류의 농지는 용수로 시설이 확충될 때까지, 의령천에 설치된 기존의 양수장에서 보충용수를 공급하던 방식으로 용수를 공급해야 한다. 이에 따라서 저수지의 물은 의령천을 거

쳐서 양수장에 공급하고, 의령천의 물은 임진왜란 때 광재우 장군이 승전고를 울렸다는 정암나루를 거쳐서 남강에 흘러든다. 솟바위를 뜻하는 정암은 남강의 좌안에 낮게 위치하며, 솟기를 닮은 세가락의 바위는 이곳에서 나라를 이끄는 세분의 현인이 난다는 전설을 안고 있다.



광재우 장군 사당 부근의 의령천 수변공간

농업용수가 풍족하면 봄철에 광재우 장군을 기리는 의병축제 때 의령천에 방류하여 행사에 도움을 주게 된다.

의병제는 광재우 장군이 의병대를 조직하여 1592년 음력 4월 22일, 임진왜란 당시 남강과 낙동강이 합류하는 기강에서 낙동강을 따라 보급물자를 수송하는 왜군을 격파하고, 6월 14일

에는 정암진에서 17 의병장과 함께 전라도로 진격하려는 1천여 왜군을 강언덕의 지형지세를 이용하고 화살로 왜군을 제압한 승리를 기념하여 소싸움과 활쏘기, 가장 행렬 등 각종 행사를 매년 4월 하순에 진행하는 행사이다.

특히, 광재우 장군이 강가에서 소들이 먼지를 일으키며 뛰도록 함으로써 용맹한 군사들이 많은 것처럼 위장하여 왜군의 사기를 꺾었다는 전설을 기리며 의령천에서 열리는 소싸움은 의병제 행사의 백미이다. 실제로 의령의 투우 중에는 전국대회를 재패한 범이, 꺾쇠, 사또 등 각 체급별 참피온 소들이 많다. 올해 의병제 때는 서암지 내부의 취수탑 공사와 성토공사 때문에 서암지를 비워놓았기 때문에 인근 저수지에서 약 10만 m³의 물을 공급하여 이곳을 찾는 방문객들에게 쾌적한 수변공간을 제공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저수지의 물이 의령천으로 풍성하게 흘러들면 그동안 자취를 감춘 많은 은어와 메기 뱀장어 등 다양한 물고기들이 다시 돌아오는 것을 돕고 왜가리와 백로 및 까마귀 등 이곳 물가에 사는 새들에게도 쾌적한 서식공간을 제공하게 된다. 또한 초여름부터 의령천 수변을 붉게 물들이고 있는 백일홍의 색깔을 더욱 짙게 하여 홍의장군의 깃발처럼 이곳이 충의의 고장임을 알리는데에도 도움이 된다.

의령천에서 어류의 이동을 조장하려면 곳곳에 설치된 취입보에 어도를 설치하거나 서암지에서 용수를 공급하는 용수로로 확충하고 취입보를 없애는 방안이 추진되어야 한다. 또한 여름철 청소년의 물놀이를 위하여 저수지 물을 방류할 수도 있다.

의령군은 환경부의 지원으로 의령천 하천정비사업을 시행 중에 있으며, 이에 대하여 농업기반공사와 기술적으로 긴밀하게 협조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같이 서암저수지 물을 다양하게 이용하기 위하여 수질을 맑게 하는데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저수지 물을 맑게 하는 것은 환경 보존 뿐 만 아니라 이 물로 재배하는 쌀의 신뢰도를 높이는데 있어서 중요한 일이다. 의령군은 쌀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서암저수지 주변의 논을 친환경 농지로 조성하고 수질과 생태보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저수지 상류의 일부 농지와 홍수터 부지를 저농약 쌀을 재배하는 논이나 미나리와 연꽃을 재배하는 습지로 조성하여 수질과 생태 뿐만 아니라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서암 저수지 사업에 의하여 저수지 상류 마을의 하수는 별도의 관수로로 통하여 저수지 하류로 방출할 예정이다.

서암 저수지의 물을 맑게 가꾸고 친환경농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이곳 주민들이 예전에 있던 흥농계와 같은 모임을 만들어서 함께 환경정화 활동도 하고 부분적인 시설은 스스로 만들어서 운영하는 방안을 권하고 싶다. 이러한 활동이 활발히 전개 된다면 농림부에서 농촌 삶의 질 향상과 소득 증대를 위하여 추진하는 농업용수수질개선사업과 저수지 수변공간 조성 그리고 도시자본 유치사업과 도농교류사업 등의 지원사업을 이곳에 유치하는데 유리한 여건을 갖추게 될 것이다.

서암저수지의 독을 높이는 공사는 130억원이나 되는 막대한 국고 예산과 의령군의 지방비가 투입되었지만 사업의 알찬 결실을 맺고, 이퇴계 선생이 머무르며 일구어낸 자랑스러운 역사의 향기를 후손에게 물려주려면 농업인들이 농업용수를 스스로 절약하고 수질 보전에도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과제라 할 것이다.